다문화 사회를 위한 연중기획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고, 국제결혼 외국인 10만명 시대가 되면서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들어섰다. 최근 몇 년 사이 광주·전남 곳곳의 산업현장에서는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 현저히 늘었고, 시내 곳곳에서도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우리를 대신해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웃' 이나 '동료'로 보는 사람보다는 그저 '일꾼'으로만 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지난해 이주여성 가족의 모든 것을 탐사한 연중기획 '온누리안 리포트'를 보도한 광주일보는 올해 다문화사회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또다른 노력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을 중점 탐사보도한다.

〈1부〉 너무나 몰랐던 우리의 이웃

"대중 목욕탕 몸 담갔더니 다들 후다닥 나가더라구요"

❶ 참고 사는 그들

"공장에서 한국인들은 나를 '야 임마' 라고 불러요. 여자들에게는 '야 이리와 봐' 라고 해요"

광주·전남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상당수는 자신들이 멸시와 천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청 집계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광주지역 2천700명을 비롯해 목포권 1천746명, 순천권 746명 등 총 6천437명이다.

그러나 광주 외국인노동자센터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은 집계가 되지 않는 불법체류자 등을 포함하면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럽고 위험해 너 나 할 것 없이 꺼리는 바람에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분야에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노동력' 보충이라는 기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을 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3D 업종에서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과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한국 보다 경제수준이 떨어진 나라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차별과 냉대를 가하고 있다. 일상에서도 그들에 대한 싸늘한 시선은 당연시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70~80%는 플라스틱 박스 제조와 프레스 및 사출, 화학제품 생산 등 지역민이 꺼리는 중소기업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어느덧 지역경제 발전을 돕는 주요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광주·전남지역 거주는 그들 개인에게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의 한정적인 체류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영구적인 집단일 수 밖에 없다.

베트남에서 온 루인(35·가명)씨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광주에 온 2년여 동안 그는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무식한 노동자 취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을 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81%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녔다. 그러나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이들은 이름 대신 '야'나 '거기' 등으로 불린다.

루인은 자신도 배울 만큼 배웠지만 사람 취급도 못받는 것 같아 괴로울 때가 많았다고 한다. 당장 돌아가고 싶지만 고국 보다 3~4배 가량 많이 받는 임금을 대부분 집으로 송금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하루하루를 감내하고 있다.

일을 마치고 거리를 나가도 피부 색깔 탓인지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말이 안 통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친구들과 몇 명이 어울려 나가면 마주 오던 사람들이 무슨 불결한 것을 본 양 2~3m 가량 옆으로 피해서 지나간다.

배가 고파도 식당은 들어가지 않는다. 돈도 돈이지만 역시 자신을 바라보는 곱지않은 시선 때문이다. 한번은 대중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눈물을 흘린 채 나와야 했다. 자신이 탕 속에 몸을 담그자 먼저 와 있던 3명이 일제히 탕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왜, 내가 뭘 어쨌는데 뭘 잘못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 한국인들이 힘들어서 하지 않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왜 피하고 의심하는 지 도대체 한국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은 65%가 회사 또는 고용주가 갖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장생활에서 고용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빨리 일해라(48.8%)"로 조사되는 등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일꾼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인씨는 한국에 사는 게 너무 불편하다. 언제부터인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말고는 무조건 숙소에서 쉰다. 아파도 참는다. 몸이 아픈 것 보다 무시받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큰 탓이다. 아프더라도 며칠을 참아서 일요일에 여는 외국인노동자센터 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 몇 시간 줄을 서야 하지만 혹 병원에서 당할 곤욕(?)을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은 편하기 때문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필리핀에서 온 게퍼리(27·왼쪽)와 랠민(28)씨. 자동차 부품 도색 전문업체인 무등전착(광주 하남공단)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이들은 매월 받는 급여의 대부분을 고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힘든 일이라 한국인들은 꺼리는 작업이지만 이들의 미소는 밝기만 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70~80% 3D업종…프레스·사출·화학제품 생산

"야 임마" "거기…" 이웃 아닌 하등인간 취급 슬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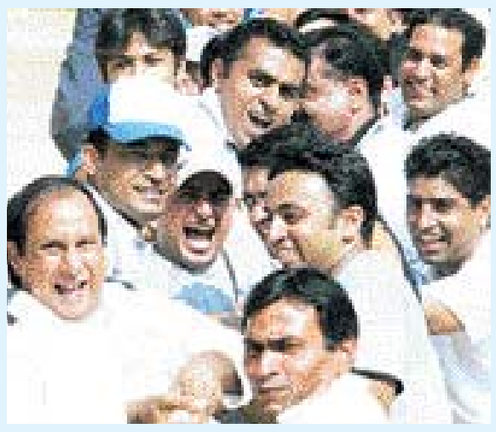
플리즈, 이것만은…

"빨리 빨리"… 우리가 기겐가요

힐끔힐끔 곁눈질 … 속상해요

한국말로 조롱 … 다 눈치챕니다

○광주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58%가 "3년 이상 살거예요"



■ 한국에 머무르고 싶은 기간

항목	빈도(명)	비율(%)
지금 당장 돌아가고 싶다	8	9.6
3~5년	48	57.8
5년 이상	16	19.3
영구히 머무르고 싶다	11	13.3
합계	83	100.0

■ 고용주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

항목	빈도(명)	비율(%)
빨리 일해라	41	48.8
안전사고 조심해라	20	23.8
저축 많이 해라	4	4.8
게으름 피우지 마라	1	1.2
함부로 돌아 다니지 마라	1	1.2
건강 조심해라	6	7.1
몸을 청결히 해라	2	2.4
기타	9	10.7
합계	84	100.0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항목	빈도(명)	비율(%)
본인	29	31.9
회사 및 고용주	59	64.8
기타	3	3.3
합계	91	100.0

〈광주 외국인 노동자 센터〉